

韓國十進分類法の 刊行에 關하여

千 惠 鳳

韓國十進分類法の 編纂에 着手한지 어
 느덧 一個年餘가 흘러 이제 그 刊行을 보
 게되니 기쁜 마음과 悚懼스러운 마음이 번
 갈아 든다. 기쁜 마음은 말은바 무거운
 짐을 干先 벗어 놓은 데서 오는 시원한
 느낌이고, 悚懼스러운 마음은 너무나도
 벅찬 일을 맡아 모자람과 그릇된 點을 남
 긴채 띄우게 되면서 오는 부끄러운 느낌
 임을 덧 붙여 敷衍한다.

도리켜 보건대 우리 自身の 固有分類法
 이 編纂된것은 일찍이 1947年の 일이다.
 이 分類法이 바로「朝鮮十進分類表」(以
 下 舊KDC라 略稱함)로서 우리 圖書館
 界의 開拓者이신 朴奉石先生에 依해서 制
 定된 것이다. 그러나 不幸히도 先生께서
 拉北되신 後는 敢히 그 業을 繼承치 못한
 채 DDC 採用의 絕頂期에 접어 들게 되
 었고, 이로 因하여 이 分類表을 使用하는
 圖書館의 數도 漸次로 줄어 들기 시작했
 던 것이다. 動亂으로부터 收復後 1956年
 에는 韓國圖書館協會分類委員會에 依해서
 舊KDC와 NDC에 準據한「標準韓國十
 進分類法」의 草案이 마련된바 있었으나
 試用도 못해보고 自然히 廢棄되고 말았다
 다시 1961年度에는 圖協技術委員會에서
 分類法の 編纂事業이 論議된바 있었으나
 實踐되지 못하고 後日의 事業으로 遷延되
 고 말았다. 또 1962年度에는 國立圖書館
 에서 舊KDC를 修訂增補한바 있으나 이
 亦是 호지부지 끝을 마무리지 못하고 말았

다.

이렇듯이 東洋의 傳統的인 學術思想과
 20世紀의 西歐文明을 包括하는 이론바 現
 代分類法の 編纂이 정녕코 어려운 事業이
 아닐 수 없었던 這間의 事情을 우리는 十
 分 理解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그後 새로히 荒蕪地에서 發足되
 는 圖書館들이 우리 社會와 文化實情에
 맞는 分類法을 要請하는 度가 날로 더 하
 였고, 또 우리에게 맞지 않는 西歐制度에
 東洋의 傳統的인 學術思想을 無理하게 뜯
 어 맞추느라고 애써 왔던 實務者들이 우
 리 固有의 分類法을 切實히 要求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本分類法
 이 나오게된 唯一한 動機인 것이다.

이러한 實情下에서 韓國圖書館協會는
 1963年度初의 全體技術委員會에서 「韓國
 十進分類法」의 編纂을 年度事業으로 採擇
 할것을 決議하고 4人의 分類分科委員을
 選出하였다. 그러나 그 事業이 워낙 벅찬
 것이 었기 때문에 우리 委員들은 여러 차
 례에 걸쳐 諮問會를 열어 主類序列을 비
 롯하여 本表展開에 있어서 도움이 될 意
 見을 聽取하고, 또 主要 分類法을 比較研
 究하면서 編纂業務를 進行시켜 온지 1年
 餘를 걸려 겨우 上梓하게된 것이다.

× × ×

韓國十進分類法에 있어서 韓國部門을
 비롯한 東洋部門 및 其他 數個 部門 例를
 들면 韓國哲學·思想, 國樂, 韓國史, 經

學, 中國哲學·思想, 佛教, 道教, 法學, 哲學의 一部等과 그 外에도 必要한 部分의 文獻과 目錄을 調査하여 體系化하였으나, 餘他의 部門은 全部 既成의 主要分類法을 直接 參考하여 設었다. 따라서 表의 構成에 있어서 다른 分類法과 大同少異한 곳이 적지 않은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草稿에 앞서 우리 委員들이 計劃한 編輯方針은 될수 있는限 그대로 지키려고 온갖 腐心을 다하여 왔던 것이니, 이에 그 編輯方針中 主要한 것과 아울러 本分類法이 지닌바 特異點을 紹介하면 大略 다음과 같은 것을 들수 있다.

1) 主類序列은 DDC, EC, LC, SC, NDC, 舊 KDC等 主要分類法을 參考로 그 得失을 比較研究하고, 또 諮問會의 意見을 參酌하여 定하기로 했다.

그 結果 DDC에 準據하고 다만 語學과 文學을 相互 接近시키는 程度로 修正을 加하게 되었다. 一方 이것을 EC의 主類와 견주어 보면 歷史를 社會科學의 領域에서 끄집어 내어 마지막 主類로 옮긴 修正을 加한 셈이 된다. 이 主類序列에 對한 仔細한 解說은 <本冊의 序說, 分類法의 解說, I 主類序列>을 參考하기 바란다.

2) 第2表以下 本表(Main tables)의 展開은 DDC를 主資料로 삼고 LC, NDC, UDC, 裘開明 編인 「漢和圖書分類法」, 成均館大學校圖書館 編인 「漢籍分類法」, 中國의 各種 主要分類法을 參考하여 이 分類法들이 지닌 長點을 最大限으로 받아 드리기로 했다.

恒常 座右에서 멀리 할수 없었던 DDC의 參考에 對해서는 새삼스러이 이에 必要도 없거니와, 特히 LC, NDC, UDC의 參考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L

C로 부터는 300 社會科學에 있어서 統計學, 經濟學, 社會學, 社會問題, 政治學, 行政學, 法學, 教育學 등의 綱目的 配列順位를 비롯하여 細目展開에 있어서 자주 利用되었다. NDC는 東洋人의 生理에 맞는 展開部分에 있어서 크게 參考가 되었다. UDC는 600 藝術에 있어서 602 材料 및 技法, 604 藝術의 主題를 마련하여 彫刻, 工藝, 繪畫, 素描, 圖畫, 版畫, 寫眞術 등에 까지 共通으로 適用시키는데 보람 있게 利用되었고 그 外에도 助記性의 效果의인 活用に 많이 參考가 되었다.

3) 韓國과 東洋의 資料를 위한 分類記號의 配當에 對하여 優位性을 賦與하고, 또 傳統의인 固有文獻을 包括할 수 있도록 可能한 힘을 다 하기로 했다. 傳統의인 固有文獻을 包括할 수 있는 條件을 갖추기 위해서 前揭한 漢和圖書分類法, 漢籍分類法, 中國의 各種 主要分類法 以外에도 10餘種의 龐大한 古書目錄 및 藏書目錄에서 書名의 頻度까지 調査하여 區分의 單位를 마련 하였고, 또 註에 利用하였다. 韓國과 東洋의 資料를 分類하기 위하여 特히 置重한 部門은 經學, 韓國 및 中國의 哲學·思想, 佛教, 道教, 天道教, 國樂, 語學에 있어서의 漢文書, 文學에 있어서의 漢文別集 및 總集, 歷史에 있어서 韓國史, 中國史, 補助學, 古文書類, 記錄類, 典故類, 野乘類, 制度類一般, 系譜 및 族譜類 등으로 過去 傳統의인 襲用해 왔던 經史子集의 四部法을 包括하려고 試圖한 것이다. 從來의 新分類法이 東洋固有의 資料에 對한 分類를 等閑視한 탓으로 古文獻이라면 依例히 別途 分類體系에 따라 整理하면 되는것 처럼 생각해 왔다. 印刷術의 發達과 東洋學의 研究活動이 活氣를

되어 古文獻의 活印 乃至 景印複製와 研究論文을 비롯한 翻譯書 註釋書等이 洋裝本の 形態로 生産이 찾아졌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裝幀이 다르다고해서 同一書 同一主題의 것을 二化的인 分類體系에 따라 分類한다면 讀者를 위한 整理라기 보다는 整理者의 簡便을 위한 整理에 不適當한 것이 된다. 圖書分類의 目的은 同一한 主題 關聯된 主題를 迅速하게 그리고 簡便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秩序있게 配架하는데 있다. 要컨대 韓國十進分類法에 있어서 두 드러진 特徵中의 하나는 東洋의 固有文獻을 다룰 수 있도록 試圖한 點을 손꼽을 수 있다.

4) 現代分類法에 있어서 가장 重要視하는 助記性を 最大限으로 活用하여 理解와 記憶을 容易케 하는데 格別히 努力하기로 했다.

어느 分類法에 있어서도 一般形式區分 地理區分 國語區分 言語共通區分 文學形式區分 全分類區分 特殊主題의 共通細目等과 같이 形式 또는 區分이 같은 것에 對하여 共通된 記號를 配當함으로써 助記性を 充分히 活用하고 있다. 韓國十進分類法에 있어서도 이에 對한 助記性的 適用에 힘썼음은 勿論이오, 나아가서는 宗教部門에 까지 그 長點을 適用시켰고, 또한 特殊主題의 共通細目を 가능한 한 많이 마련하는데 힘을 다 하였다. 例컨대 前者에 있어서는 比較宗教의 211~218의 要目으로 展開된 區分을 各宗教에 共通으로 適用시킨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境遇細目の 內容은 宗教에 따라 各各 다르고 또 細目の 展開에 있어서 精粗의 差異는 있지만 그어느것이든 要目的 區分이 同一하므로 記憶이 容易하다. 後者에 있어서는

612.4~612.9 其他宗教建物에 있어서 240~290과 같이 主題區分하여 回教寺院建物을 612.8로 細分한것 따위를 들 수 있다. 그외에도 區分配列에 있어서 論理的인 主題體系에 混亂을 주지 않는 限 助記性的 適用에 膺心하였다. 例를 들면 225.7 佛敎敎育(370 敎育), 226.23 寺刹法規 및 寺刹法(023 法規 및 規定), 521.2 農業物理學(420 物理學), 521.7 農業生物學(470 生物科學)과 같은 것을 비롯하여 325.1 經營政策, 327.1 金融政策, 329.1 財政政策, 334.1 社會政策, 336.1 勞動政策, 522.1 農業政策등과 같이 政策은 1의 記號를 配當하여 記憶을 도와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322 經濟政策과 같이 區分配列의 論理的인 體系를 維持하기 위하여 例外的인 取扱을 한것도 있음을 附言한다.

5) 同一한 主題에 對하여 二個所에 分類할 수 있는 것은 圖書館의 種別과 讀者層의 性格에 따라 任意로 擇一할 수 있도록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對하여 몇가지 例를 들면 農業經濟와 같은 特殊産業을 보다 더 密接한 主題인 農業에 分類하도록 마련한 同時에 經濟를 專門으로 研究하는 機關의 圖書館을 위해서 320 經濟學下의 産業經濟에서도 分類할 수 있도록 한 點이다. 이와같은 要領으로 法律에 있어서도 特殊法律 및 法令을 各主題下에 分類할 수 있도록 分類記號를 配當 또는 形式區分 023을 마련한 同時에 法律圖書館을 위하여 360 其他諸法을 마련하고 000-999와 같이 分類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외에도 分類에 있어서 高度의 專門的인 知識을 必要로 하거나 分類하는데 時間이 적지 않게 所要되는것

에 있어서는 體系的인 細分類와 著者の 가나다順排列을 함께 마련하여 圖書館에 따라 任意로 擇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151.5 李朝時代 哲學·思想, 152. 4—5 宋元明과 淸時代 哲學·思想, 153. 4 日本近世哲學·思想등이 바로 그것이다.

6) 主要分類項目 아래서 될 수 있는 限 많은 註를 달아 分類者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로 했다.

學問의 發展과 더불어 本表의 組織이 漸次로 複雜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 는 從前과 같이 分類項目만을 羅列한 것으로서는 正確한 分類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內容의 註를 달았다.

가) 主要分類項目에 對한 定義와 內包된 概念의 範圍 및 關聯된 主題 接近된 主題의 包含을 表示하였다.

나) 分類表 展開에 있어서 後日의 研究를 기다려야 할 部分 또 그다지 細分하여 記號를 配當할 必要性을 느끼지 않는 곳에 있어서는 그 小主題를 註에 列學하였다.

다) 古文獻의 分類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特定書名을 註에 例로서 든 것이 있다.

라) 必要한 곳에 있어서는 亦是 分類에 도움이 되도록 人名과 地名을 많이 收錄하였다.

마) 各種 助記表를 效果的으로 使用토록 하기 위하여 그 區分의 展開을 指示하고 例를 一一히 들었다.

바) 二者擇一이 있는 分類項目 아래서는 圖書館의 種類와 性格에 따라 任意로 擇一할 수 있도록 註로 說明하였다.

사) 分類에 있어서 參照를 必要로 하는

項目을 註의 끝에 列學하였다.

이와 같이 本表에 註를 단것은 從來의 東洋諸國 分類法에서는 보기 드문 特徵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圖書館의 種類와 性格의 如何에 따라 달라져야 할 表의 使用問題에 對하여 簡單히 言及코자 한다. 韓國十進分類法은 다른 一般分類法과 마찬가지로 第一表(主類) 第二表(綱目) 第三表(要目) 및 本表(細目)로 構成되어 있다. 本表의 展開는 部門에 따라 精粗의 差異가 있어 再版 以後의 展開를 必要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比較的 詳細한 곳도 있어 論文中에 나타나는 題目을 다룰 수 있도록 小主題까지 展開된 곳도 있다. 本來 分類法은 各種 圖書館의 使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限 詳細한 展開를 必要로 하지만, 實際에 있어서 專門圖書館이 아닌 圖書館은 大圖書館이라 하더라도 本表와 같이 全般에 걸쳐 詳細한 分類를 必要로 하지 않는 것이 一般의인 傾向이다. 따라서 이 境遇는 圖書館에 따라 記號를 適當한 곳에서 잘라 利用의 能率化를 圖謀함이 必要하다. 中圖書館以下에 있어서 表의 使用을 決定할 때는 藏書構成計劃을 土臺로 하여야 하며, 이計劃은 앞으로 10年 또는 20年後에 增加될 藏書數를 豫想하고 이를 基準으로 삼아야 한다. 萬一 그러한 將來計劃이 없이 現藏書數를 基準으로 하여 表를 選定한다면 머지 않는 將來에 必然的으로 再分類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大體로 國民學校와 같은 圖書室은 第二表, 中等學校와 같은 적은 圖書館用으로는 第三表, 中圖書館用으로는 本表를 推薦하고 싶다. 그러나 中圖書館이 本表를 使用할 때는 若干의 特殊한

境遇의 分類記號를 除外하고는 大體로 1000單位의 細目까지 使用하면 足할 것이다.

× × ×

以上에서 本分類法의 編輯方針中 主要한것과 그 特異點 그리고 表의 選定 問題에 對하여 頭緒없이 言及하였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提示된 實物은 위의 潤色の인 說明과는 동떨어진 것이 되어 부끄럽기 그지 없다.

이번에 처음으로 共同作이 얼마나 어렵고 힘 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워낙 微力한 데다 加之하여 勤務時間內에는 자리를 같이 할 수 없었고 時間이 끝난後에야 몇 時間씩 合席하는 程度였으며,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 마저도 公私의 事情으로 成員을 보지 못했던 形便이 었다. 이러한 事情은 校訂에 있어서도 부닥 혔다. 極히 制限된 時間內에 미처 다 檢討할 수 없는 過重한 負擔量, 橫的 連絡의 不圓滑, 게다가 印刷에 있어서 制限된 時間의 事情등 이러한 핸디 캡으로 因하여 不足한곳과 誤植이 있음을 다시 한번 謝過한다.

오직 誠意있는 여러분의 協助로서 改訂版이 나오게 되기를 懇切히 바랄뿐이다. (끝)

(筆者: 東國大學校 司書課長兼 韓圖協 技術委 分類分科委員長)

配本中!

韓國目錄規則

〈菊版 洋裝 130面
1000冊 限定版〉

값 會員 300 원
一般 360 원

A.L.A의 目錄規則, L.C 및 朴奉石氏의 東書編目規則과 1961年 國際目錄會議에서 決定된 原則等을 參考한 우리나라 初有의 體系化된 目錄規則이다.

韓國十進分類法

〈菊版 模造 700面
1000冊 限定版〉

값 會員 1,500원
一般 1,800원

—附相關索引— D.D.C, N.D.C, E.C, L.C, 外 朴奉石著 朝鮮十進分類表 및 裘開明 分類法, 成均館大學校 漢籍分類法, 等 많은 既成分類法과 藏書目錄에 依한 項目의 使用 類度까지 調查檢討하여 編纂한 本分類法은 類, 綱, 目을 우리의 事情에 맞도록 展開 配列한 分類法으로 詳細한 註記와 展開를 細分하였으며 實務에 便하도록 相關索引까지 收錄하였다.

注文 接受 7月 25日限 (別添 注文書 및 振替用紙를 利用하시기 바랍니다)

配 本 注文書 接受 即時로 送付해 드립니다.